

발행인 손영주 발행일 2015년 5월 21일(목)
 편집위원 이부민, 문인구, 박수현, 김현민, 박혜란
 ☎ 121-8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Tel 02) 3141-3011 Fax 02) 3141-3022
 E-mail equaline@hanmail.net
 Homepage www.equaline.or.kr

여우노리

女 友 女 友 女 友

시즌 2

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 867-4456
 www.kurowoman.com

구로샬터지역자활센터 | Tel. 867-0516
 www.gurolife.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Tel. 332-7171
 www.workingmom.or.kr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Tel. 802-0922
 http://nambu.seoulwomen.or.kr

구립트트어린이집 | Tel. 809-9868
 http://iseoul.seoul.go.kr

매월 세번째 토요일에 만나요 '여우산책' (女友)

일하는 여성의 벗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여우산책은 회원들과 벗하며, 업무와 일상에 지친 몸마음에 자연의 여유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3월 21일 안산자락길을 시작으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 참여, 5월 16 일에는 노을공원에서 점심도시락과 함께 하는 즐거운 수다 시간을 가졌다.

벗들과 함께 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누군가 그림고 여유가 필요할 때 여우산책을 떠나보자. 다음에는 어떤 벗들을 만나게 될지 그들의 수다가 기다려진다. 여우산책은 매월 세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며,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한다. 더욱 풍성한 산책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정리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본부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선출

1월 28일 오후7시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여노를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하고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정현백 선생님의 이임식을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진행하였다.

[임원진 소개] 이사장 왕인순, 회장 손영주, 부회장 유옥순·윤혜연·황현숙, 이사 윤정숙·강남식·김진·김혜진·서정연·한명희, 감사 홍현희·여연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8개팀 선정 지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지역에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엮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하여 직장부모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8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각 팀은 5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아바와 자녀의 데이트 및 부모교육을 통한 가족유대강화, 아이와 함께 텃밭 가꾸기, 동네 음악 즐기기 등의 마을활동, 직장부모인문학(돌봄인문학), 직장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여행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센터는 각 커뮤니티의 활동을 컨설팅하고 부모교육, 직장부모 노동법률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문의전화 : 02-332-7171



구로샬터지역자활센터

장학금 & 교복비 전달식



장학금·교복비 전달식 진행

3월 5일 교육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마린랜드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의 장학금 수혜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참여주민 자녀 6명이며, 교복비 수혜자는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6명이다. 총 480만원의 금액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된 든든한 후원의 날이었다.

경희대 & 구로샬터의 <희망의 인문학 강좌> 개강!

센터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협약을 맺고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문학·철학·역사·예술 4개 과목 총 48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9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3월 30일 개강했으며 한 학기 12주과정으로 7~8월은 방학기간이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2015년 여성유망직종 설명회 개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4일(화) 금천구청, 15일(수)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여성유망직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설명회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두 센터가 협력하여 공동 주최하고, 금천구청과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소개된 유망직종은 3D프린팅 전문강사, 인성 이미지컨설턴트, 노인복지행정사무원, 도시농업지도사, 중소기업사무원(ERP),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진로직업코치, 공정여행기획자, 보험법인총무사무원, 약국전산원, 편집디자인, 전직지원전문가 등 20개 과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추가상담이 진행되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개의 장도 마련되었다.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



된 이번 행사에 30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해 취업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었다.

양 센터의 유옥순, 서정연 기관장은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설명회장을 방문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직 재취업의 활성화와 취업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터에서 날아온 소식

‘레인보우해피집’ 파이팅!!



‘레인보우해피집’ 선생님들과
함께한 필자(가운데)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비루한 삶이냐”라고 국제 구호전문가 한비야씨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응원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비루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해 직업상담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명함을 만들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첫 문구입니다. 제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2014년 4월에 입사하여 인계 받은 업무 중 [레인보우해피집] 마을기업 지원업무는 그 다짐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첫 시험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비루하지 않은 삶을, 의식있는 삶을 살다 다짐했지만 실상은 자신 한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어 했던 제게 마을기업 지원업무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던 6명의 다문화 강사들과 소통하며 프린트 대행부터 다문화 강사시청 어린이집의 행정적 서류요청에 응대하기까지... 한글이 서툴다보니 보내오는 서류마다 일일이 교정해야 했으며 다문화 강사를 자체적으로 충원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지원해야 할 잡무로 인해 기쁘

게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마을기업 [레인보우해피집]은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센터에서 서서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가량 진행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난한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레인보우해피집] 협동조합은 드디어 3월30일, 구청의 설립 신고 확인을 받아 서류 공증 과정에 들어가게 됐으며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인생의 한 모퉁이를 고통과 슬픔으로 힘겹게 돌아 나올 때에도 무에 그리 일희일비 할 것이 있나며 심드렁하게 그저 흐름을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지난 5개월의 시간이 인생의 전환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쌓여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끈기 있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도우며 조금이나마 비루하지 않은 삶의 언저리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레인보우해피집] 파이팅!!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혜숙 / 집단상담운영

이혜숙 선생님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다문화 강사 지원업무를 맡아 소소한 것에서 행정적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직장맘, 마을에서 함께 살다!



요즘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그 좋은 경력을 다 버리고 전업주부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집안 울타리에 눌러 앉는 현실인 요즘이지만 저는 다행히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결혼,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직장을 그만 두고 잠시 집에서 쉴 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TV에서 해외입양아 일일 위탁모 활동을 보고 우리도 위탁 가정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 경력도 짧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워온 터라 아이 키우는 노하우도 많지 않아서 이래저래 고민하던 중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그림책도 고르고 육아서적도 살펴보면서 포레 엄마들과 인연이 닿아 자연스럽게 마을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아이만을 바라보던 눈길이 이웃의 아이들에게까지 닿게 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 마을은 살며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짬을 내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작은 씨앗도 심으면서 어느새 모여진 엄마들은 마을엄마, 마을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흠뻑 빠진 저는 2013년 마을공동체 강사가 되었고, 2014년에는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 컨설턴트를 맡으면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직장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직장

부모들에게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는 엄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웃들과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직장맘들이 더 존경스러웠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많은 직장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듯 저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응원군이 되고자 지난 3월 동작구에 ‘마을발전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마을발전소’는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삶터가 일터가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낮은 저널 직장맘들의 참새 방앗간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의 작은 연구 모임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동네 꼬마 녀석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바라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바로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발전소’를 우리 모두가 충분한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오늘도 마을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요술램프를 문질러 봅니다.

김영림 / 동작품앗이&마을발전소 대표

김영림님은 2014년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컨설턴트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동작구에서 ‘마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입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삼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나의 삶터가 된 구로삼터 이야기



이번호는 김남정님의 이야기입니다. 구로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마음고생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터’로 만들기까지 솔직하지만 어딘가 가슴이 아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Q. 구로삼터지역자활센터 오기 전 생활은 어땠는지요?

뼈 부위 잦은 통증과 하지 정맥류에, 자주 피곤한 증세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장도 얻을 수 없었고, 단시간 알바를 닥치는 대로 찾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한 달에 40~60만원 정도 받았고, 월세 내고 생활 필수품 사고 나면 빠듯한 생활이었어요. 하루하루 일용직 생활이었죠.

Q. 삶터에 처음 와서는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지 잡생각과 우울한 마음이 종종 들었고, 만사가 다 막막했던 터라 직장동료와 그냥 사소한 대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짜증스런 말투로 쏘아 부쳐 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구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상대방과의 대화가 잘 융화되지 않았죠. 그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Q. 현재 <통합교육지원사업단> 소속으로 전환하기까지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었

는데요. 수많은 고민을 내려놓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지원사업단>은 교육 계열 인데다가 하나하나 내 자신의 결여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화장하는 것부터 옷 입는 것, 공부하면서 자기계발하기, 예의 지키기 등등..

교육계통 선생님들과 같이 맞추어서 일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배우면서 터득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있었구요. 그런데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일로 인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었죠. 그게 제 안에 90%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

Q. 인터뷰를 마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다는 점이에요. 고개턱이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니 이루어졌어요. 자신감과 뿌듯함에 희열이 넘치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아이러니하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김남정 / 통합교육지원사업단

주변에서는 김남정님의 함박웃음을 보면 밝아지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녀의 웃음이 세상을 위한 빛으로 만들어질지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취업! 어렵지만,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인티시스템의 경영지원팀 조현진입니다.”

당당히 나의 이름을 말하며 커리어우먼의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된 제 사연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2년 정도의 짧은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23세에 결혼과 출산으로 아줌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키우며 무의미하게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지친 삶에 활력을 주고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국비과정인 ‘중소기업사무원(ERP)’에서 ERP정보처리자격증과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자격증 등 4개의 자격증을 4개월 동안 배우고 익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교육비 지원과 해당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안내와 응시료도 지원해주는 여성직업교육이 없었는데, 남부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 과정을 열심히 하여 수료하고 취업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직업상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주5일 근무이며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쉬는 제가 찾던 일자리였습니다. 아직은 종일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저는 기쁘면서도 불안한

맘으로 나인티시스템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경력자를 뽑고 있던 업체에서는 정중하게 저를 거절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회사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지만, 적합한 일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아쉽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제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준 사장님의 문자 내용에 감사했습니다. 답변을 통해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두 번의 통화 후 저는 지금 이곳 나인티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번의 급여를 받으며 저는 부딪치고 깨지며 다듬어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동료 직원들은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질타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감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전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전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전문가의 역량을 키워 나가세요.”

조현진 / 나인티시스템 경영지원팀

조현진님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꿈을 가지고 중소기업사무원(ERP)과정을 수료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도전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분이십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요구 '비타500 퍼포먼스'를 하는 여노·노조 회원들

위 사진은 올해 4월20일 광화문광장에서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위한 공동행동선포식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차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 결정되는데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다. 평상시의 상승률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액수이지만 이는 결코 웃자고 제시한 액수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당국자들이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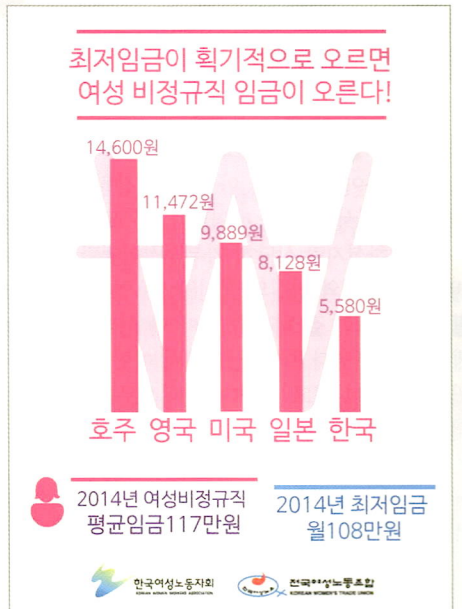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당 적어도 66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 한도를 모두 채워 일해야 겨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비율은 2013년 기준 14.7%로 콜롬비아(3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은 각국에서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는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선포식과 아울러 거리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40시

간 근무기준으로 월209만원의 급여를 받게되는데 이는 한 명의 풀타임 근로자가 4인 가족의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임금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이고, 공공부문도 13만 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여성이 148만 명이고, 여성비정규직이 140만 명이다. 시간제 등으로 내몰리는 여성비정규직의 확산은 최저임금 인상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상!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해소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다. 개가 웃는다. 쌓여있는 기업의 돈을 풀어라. 일부만 풀어도 당장 정규직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91만 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로 바라보면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노동자에 비해 과도하게 기업편향적으로 기울어진 법·제도의 저울추를 다시 맞추어라.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은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전통적으로 차별 받아 왔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명목상 '보호책'일뿐 실제로는 노골적인 여성비정규직 '확대책'에 다름 아니다.

※인포그래픽(information + graphic)은 정보를 구체적, 실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우와 함께 하며

이 꼭지는 서울여노의 자문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여노와 함께 하며 느끼는 단상을 나누는 란입니다.



임성호 노무사

아빠가 징검다리가 되어줄게...

늦가가 들어 귀한 첫 딸아이 얻고 딸 바보가 된지 두달 남짓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딸아이가 가끔 지어주는 웃음에 세상 다 가진 듯 기쁜 맘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문득 여성이 당당히 살아가기 힘든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 딸아이 걱정에 심한해지기도 합니다. 서울여노 자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무수히 보고 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여성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불가의 직장과 가정문화 등 여성근로자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상담 사례'들이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있구나, 이제야 그들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내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애기를 키워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냥 가정주부 할까?"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까지만 해도 "응 좋을 대로 해. 내가 좀 열심히 일하면 되지"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자그맣고 여린 딸아이를 보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으로 의기소침해있다면 서울여노 자문노무사라고 할 수 없겠지요? 남편에서, 딸 바보 아빠로 신분이 격상되니 무거워진 책임감만큼이나 여성 노동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아빠가 징검다리 하나라도 더 놓아야겠다는 사명감이 맘 깊숙이 자리 잡게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서울여노와 함께 여성노동자가 당당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봅시다.

※ 임성호 노무사님은 2013년부터 자문노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률지식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장의 추억



1996년 10월 18일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정책토론회' 왼쪽부터 차례대로 배옥병, 한명희, 황현숙 전 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남녀고용평등의 달은 1995년 기업의 채용 시기에 맞춰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하면서 제정됐으며, 현재는 매년 5월 25~31일을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으로 정해 각종 세미나, 캠페인 등이 열리고 있다. 서울여노는 올해 5월 28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가산디지털단지 역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 여우가 만난 사람 •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왕언니

왕인순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번호에는 1987년 서울여노 창립의 주역이며, 올해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왕인순 이사장님을 인터뷰했다. 그녀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여노의 살아있는 역사' (황현숙), '원칙적이고 한결같은 사람' (윤혜연), '도수 높은 안경 쓴 사감샘' (유옥순), '부지런한 다람쥐' (배진경), '인생의 멘토/믿을 수 있는 사람/실행력이 뛰어난 사람' (이주환)... 20여년간 보아온 지인들의 생각이니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성(姓)이 왕씨여서 '왕언니'라 불렸는데 이제는 정말로 '왕(王)언니'가 된, 아직은 이사장이란 직함이 낯설어 수줍어하는 그녀를 만나보았다.

가정에서 짝 튼 여성문제 의식

이사장님은 이복이 고향이신 아버지와 '강원도 산골 소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1962년 태어났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겸소하고 부지런하셨지만 상당히 가부장적이었던 '의지의 한국인' 아버지와 '인내와 성실의 화신(化身)'인 어머니를 보면서 '사회활동을 했다면 잘 하셨을 엄마'가 아빠한테 주눅 들어 사는 게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력 있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었다고,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짝 튼 계기였다.

대학에 들어가 여성문제 공부를 계기로 다양한 책을 읽게 되고 사회의식이 강해진 과정, 학생운동의 필수코스였던 공장생활을 한 후, 비합법이 아닌 여성단체를 찾아 우리나라 진보여성운동의 산실(産室)인 '여성평우회'에서 일했던 이야기, 여성평우회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로 발전적 재편을 하게 된 과정은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고 여노에서 일할 때의 그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소명, 여성노동자회... 그러나 직장맘의 숙명 일·가정 양립과 마주하다

그녀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시작해 한국여성노동자회까지 만15년을 여노에서 일했다. 당시를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보람찼던 시간, 소극적이었던 자신이 성장하고 사랑 받았으며, 리더십을 키웠던 시간'으로 표현했다. 그 만큼 그녀도 혼신을 쏟아 일을 했다.

92년 아이를 낳으면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직장맘의 숙명과도 마주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녀가 출산휴가를 당시 시민사회에 전례가 드물게 6개월을 신청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때는 출산휴가 90일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지만 왕이사장님은 일·가정 양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했기에 감명을 할 수 있었다. 6개월의 기준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생후 6개월부터 아이를 받아주었기 때문이었는데 덕분에 여노회 기혼들에게 아주 훌륭한 길을 터준 셈이 됐다. 내가 출산 후 맘 편히 아이와 보낸 6개월의 시간은 알고 보니 왕언니의 덕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집에 일을 싸와 아이를 재우고 서류를 펼쳐들기 일쑤였고, 교사인 남편이 많이 도와줬지만 여자가 맡아야 할 부분이 크다보니 결국 몸에도 무리가 오고 말았다. 위염이 심해져 밥을 못 먹었고, 정경완장애가 와서 칫솔질도 못 했으며 살이 갑자기 찌고 빠지기도 했다. 2002년 여노를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은 심각한 두통과 불면에 시달려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빈자리를 메울 다른 동료들의 업무하중이 먼저 걱정되었다고 한다. 정말 말만 들어도 딱한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집착'이었던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숙명이었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그녀는 치유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명, 치유자로서의 삶

그녀는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요가치료학을 가르치는 심신통합치유학 박사이다.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더욱이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지만, 여노 상근활동을 마감하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요가를 하는데 '이게 치유구나'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즐거운 요가'를 계속하다보니 현재에 이르렀고 여성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요가와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의 삶을 사회적 모성(돌봄)을 실천하는 제2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는 웃픈 이야기도 있지만, 자신의 일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 요즘,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열정을 바치는 그녀가 부럽기만 하다. 자신은 '요가선생'과 '여성운동 서포터' 두 개의 직업을 가졌다면 후배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나타나는 이사장님! 그녀의 엄청난 인맥만 해도 벌써 열 서포터즈가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일선에 있는 후배들에게 뭐라도 보태고 싶다'는 얘기를 늘 달고 산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 역사를 쓰는 그 길에 왕이사장님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인터뷰·정리 이부민〉



1988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열린 여노 1주년 행사장에서 (맨오른쪽이 이사장님)

애용하는 썸캡을 쓴 모습. 제자들이 '로보캡'이라 부른다고^^

지역사회와 연계로 성장하는 튼튼이



구립튼튼이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연계의 폭을 넓히며 알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화단을 가꾸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수강생의 재능기부로 동화구연이 열렸다. 또한 사회적기업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텃밭을 만들고 간호사분들의 도움으로 아동의 건강관리를 1년간 지원 받기로 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구에 행하였던 화단에 회양목, 옥잠

화, 비비추, 맥문동, 진달래, 라일락 등이 심겨져 작은 정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동화구연은 어린이날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수업을 들었던 30~50대 교육생 6명의 자원으로 이루어졌다. 원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어린이집은 재능기부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강생에게도 봉사과 자신의 역량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조성된 3개의 텃밭에는 감자, 방울토마토, 완두콩, 땅콩, 오이, 고구마 등을 심어 놓았다. 원아들도 자신의 화분에서 강낭콩을 각각 키우고 있어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천구 도시농업에서 강사가 오셔서 텃밭가꾸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고 있다.

또한 서울시지원사업으로 (사)대한간호사협회의 도움으로 방문간호사가 월1회 오셔서 아이들 아동의 건강관리를 1년간 지원 받기로 하였다. 아동에게는 시력검사, 구강교육, 감염예방 등을 진행하고,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예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영아돌연사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각 가정으로 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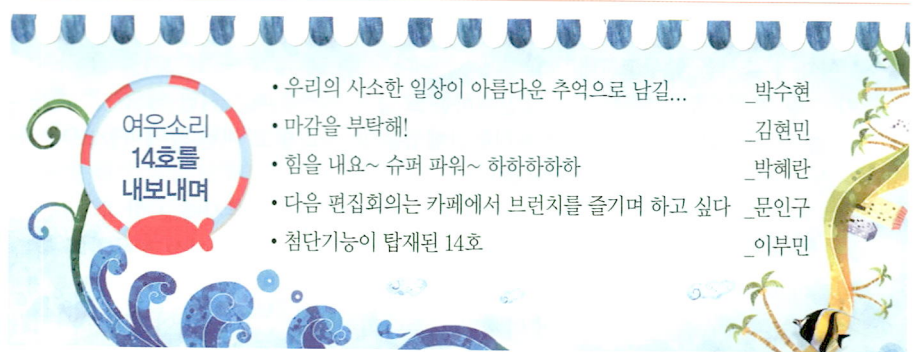
〈정리 이부민〉



후원명단

강남식 강보은 강윤신 강은숙 강정진 계경숙 고금숙 고종현 공유식 곽주연 구본권 권은경 권은숙 김경란 김광희 김기영 김 린 김명희 김미례 김미리 김민선 김상열 김수경 김숙자 김신연 김연주 김연중 김영선 김영옥 김영철 김용신 김유미 김은영 김장숙 김재진 김정임 김지미 김지수 김지영 김 진 김진희 김혜영 김형자 김현민 김현숙 김현순 김혜정 김혜진 김효동 김효선 나유리 남윤순 노애라 노현주 노희정 류영미 문은미 문인구 민현정 박가현 박경숙 박경옥 박경자 박근성 박미선 박보경 박옥영 박은국 박은영 박정화 박지혜 박지연 박진영 박혜경 박혜란 박혜정 방승희 배옥병 변경미 봉만수 서정연 서진선 서혜경 성훈화 손미희 손영주 손은하 송기진 송민정 송희숙 신문용 신민정 신상아 신현숙 심상연 안강숙 안정연 안정현 여연심 염은주 염창순 오성화 오세정 오정민 왕인순 원동순 원혜영 유상옥 유선우 유시주 유옥순 윤금옥 윤선웅 윤선주 윤영신 윤정숙 윤진숙 윤택기 윤혜숙 윤혜연 이경영 이광복 이국희 이규진 이근호 이명선 이미경 이미영 이민숙 이부민 이상옥 이성민 이소영 이 솔 이송란 이유정 이윤경 이은령 이은희 이재숙 이정숙 이정혜 이재윤 이주연 이주는 이주환 이주희 이진심 이한빈 이혜숙 이혜영 이호섭 임내옥 장성희 장진호 전귀옥 전유미 정경숙 정경원 정보영 정지선 정홍금 조미수 조상희 조수진 조윤서 조자영 조지훈 조혜원 최경희 최성호 최승만 최옥금 최원호 최현주 최혜순 한명희 한미선 한민영 한순복 한영규 한조혜 허목화 허세영 허장희 허주리 허지영 홍주희 홍진숙 홍현희 황금희 황지영 황현숙 선택미록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박수현
- 마음을 부탁해! 김현민
-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하하하하하 박혜란
- 다음 편집회의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하고 싶다 문인구
- 첨단기능이 탑재된 14호 이부민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서울여성노동자회